



오네시모 선교회 Newsletter

감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당신
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당신과 내게
유익합니다.”
(빌레몬서 1:10-11)

7751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714)739-9100

여름 2025

Vol.1

오네시모 사역, 새로운 리더십으로 전환

리더십의 전환은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며, 종종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정치적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히 인간 권위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신성하게 계획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은 리더십 전환의 수많은 예를 제공하며, 각기 고유한 상황과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의 리더십 전환

가장 주목할 만한 리더십 전환 중 하나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의 전환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이자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광야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므리바에서의 불순종(민수기 20:12)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모세의 조수였던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이 전환은 공개적인 위임으로 특징지어지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지혜와 권위를 부여합니다(신명기 34:9).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여호수아 1:5)는 약속으로 그의 임재를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아에서 엘리사로의 리더십 전환

예언자적 영역에서 엘리아에서 엘리사로의 전환은 멘토십과 신성한 부르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기름 부었습니다(열왕기상 19:16). 엘리사가 엘리아의 영의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열왕기하 2:9)은 그가 예언자적 사역을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냅니다.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에 휩싸여 극적으로 승천하고 그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전달된 것은 예언적 권위의 이양과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됨을 상징합니다.

바울에서 디모데로의 리더십 전환

신약 성경에서 바울에서 디모데로의 전환은 멘토십과 사도적 가르침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사역의 끝이 가까워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하라"(디모데후서 4:2)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들은 건전한 교리, 인내, 그리고 다음 세대로 믿음을 전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전환은 교회 안에서 신실한 리더십의 필요성과 복음을 전파하는 지속적인 사명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이러한 리더십 전환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각 전환은 순종,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존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네시모 사역의 리더십 전환



설립자 인사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께,

3년 전 은퇴한 이후 여러분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오랜만이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는지 몰랐는데, 벌써 세 번째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모두 잘 지내셨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시력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한 시간 정도 운전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아내도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인데, 아직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훨씬 좋아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오네시모 선교회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3년 전, 제가 여덟 번의 눈 수술을 받고 신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는 암이 전이되기 전에 신장 하나를 절제해야 한다고 긴급히 권유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사역을 계속하려 했지만, 건강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제 오른팔이었던 아내마저 제가 수술받은 지 불과 2주 만에 허리 수술을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둘 다 회복 중이어서 사역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온전한 힘을 다할 수 없는데도 사역을 계속하는 것은 신실하지 못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히 후임자를 찾고, 지난 3년간 사역해 온 최준성 목사님 부부에게 선교회와 교회의 리더십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최 목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와 선교회 모두에서 사임하셨습니다. 이사회는 이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리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는 은퇴 후 소버 하우스의 형제들을 간헐적으로 방문하면서 만났던 어느 목사님 한 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저희는 다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오네시모 선교회의 새로운 목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임데릭 목사님입니다. 그분도 저희와 유사한 재사회화(Re-Entry)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57세이신 목사님은 50년 동안 미국에서 사셨고, 한국어와 영어 모두 유창합니다. 사모님은 35년 이상 교육자로 일하셨으며, 지역 사회 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예방 사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분 모두 배우고 전환하는 시기에 있으며, 저희는 이 소식을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이 세대에서 신실하고 겸손한 종이 되기를 겸손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임데릭 목사님이 사역에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그분을 지원하고 선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714-739-9100으로 동일합니다. 영적 또는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시거나 편지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평안 안에 굳건히 서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견디고,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선교회의 모든 지체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그분의 훈련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가정에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석기 목사 드림



오네시모 선교회

지금 진행 중인 사역 소식입니다!

교도소 및 감옥 사역

카운티 교도소: 매주 금요일, 오네시모 선교회는 Santa Ana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방문하는 이들 중 많은 수가 젊은 재소자들입니다. 코로나 이후 세상의 유혹에 빠져드는 젊은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정신 건강 문제와 약물 관련 수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마지막 때의 상황을 경고하며, 깨어 있어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8). 우리 지역사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도소 방문: 7월부터 선교팀은 교도소 및 재활 시설 방문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편지나 전화로 선교회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방 사역

7월부터 오네시모 선교회는 법원과 협력하여 “숏스탑 프로그램(Short Stop Program)”을 통해 새로운 청소년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비행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죄와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있는 분들의 간증, 편지, 또는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멘토가 되어주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실제 삶의 이야기는 청소년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역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뉴라이프 사역

한국으로 추방된 분들을 위해, 오네시모 선교회는 주거, 일자리, 가족과의 재결합을 돕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입니다.

“골짜기는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 시편 23편

오네시모 신학교 (OST)

많은 재소자들이 OST(오네시모 신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선교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산 루이스에서는 다니엘 목사님과 사모님, 김명철 선교사님의 인도로 OST 재입소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이들은 지역 교도소와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사역하며, 계절 집중 과정을 통해 130명 이상의 스페인어권 지도자들에게 개혁주의 신학을 교육해 왔습니다. 2025년 5월 20일부터는 매주 정기 수업으로 확대되어, 재소자들과 지역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사역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네시모 선교회

주의 깊게 보세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원봉사자들

6월 6일, 오네시모 선교회를 후원하는 분들이 바자회를 열어 기금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이 기금은 오는 9월 새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티의 아동 79명을 위한 신발을 구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델만 형제는 뉴욕의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OST(오네시모 신학교)를 졸업한 후, 현재는 아이티에서 오네시모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그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신실하게 돌보며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갇힌자에게 사랑을”

2025년 후원 음악회

저희 선교회는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 동역을 다지고 새로운 비전을 나누기 위하여 10월12일(일)오후 6시에 오네시모 선교회 후원음악회를 갖고자 합니다. 후원회와 봉사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October
12



금요 기도회

매주 금요일 저녁은 오네시모 가족들 그리고 저희 선교회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 여러분의 기도제목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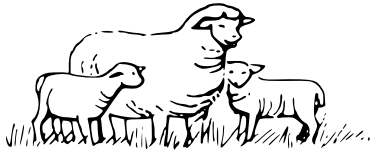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 동역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용사들이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겠습니다.

일시: 매주 금요일 5시 30분

장소: 오네시모 선교회 본당

우리 함께 기도해요!
언제나 기도회에 환영합니다!





설립자 간증

-김석기 목사-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27)

저는 올해 벌써 75세가 되었습니다. 나이 40에 가방 하나를 메고 홀로 가데나에 있는 신학교로 온 지 3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5년의 미국에서의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감격과 감사뿐입니다. 한국에서의 40년은 저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은 한 번도 없었던 인생, 오직 자기 만족만을 찾아 헤매며 살았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 40에 가방 하나를 들고 신학교로 와, 제 친구의 말마따나 멋도 모르는 길을 그냥 달려왔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함께 해 온 아내와 사랑하는 두 자녀들까지... 지금 생각하며 돌아보면 꿈같은 과정들이었습니다. 이제나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은퇴를 하고 돌아보니 미국에서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진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감격이자 하나님께 대한 저의 은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 봅니다. '만약 지금 내가 한국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제 대답은 "**큰일 날 뻔했다**"였습니다. 저의 한국에서의 삶은 허전하고 쪼어도 쪼여지지 않는 허망한 것들을 쫓는 삶이었습니다. 집안이 경영하는 그룹에서 마음껏 일을 했고 자부심도 강했습니다. 장래도 있었지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현모양처인 성실한 아내와 사랑하는 두 자녀들, 여느 가정 못지않았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 한쪽에서는 허전함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왜 사는지 몰랐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인생의 고비를 지난 후에야, '아, 내 인생이 그랬던 것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 장가가고, 가정을 갖고 자녀들을 키우며 늙어 가면서 삶의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요. 게다가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은 얼마나 경쟁적인지요. 거의 1년 내내 술을 마셔야 하는 경쟁 사회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들의 세대는 민족적 연민이 뒤섞이고 남자들의 역할과 지위는 사회생활에 치중되어 있어 더욱더 치열했지요. 만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술을 마셨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기업은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나라 살리기에 흡수되어 날마다 전쟁을 치러야 했던 사회 구조였습니다.

그러던 중 가정적으로 큰 시련들이 왔습니다. 그룹이 파산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 과정을 보고 겪으면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를 어렵듯이 그 결과들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룹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가졌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았고, 두텁던 인간관계와 의리들이 자기 이익 앞에 10초도 안 걸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이 세상은 오직 힘의 원리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존경했고 선망의 롤 모델이었던 분의 무너짐을 보게 되었고, 세상이 그를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허망 그 자체였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임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개도 해 보았고, 마음속에 칼도 갈아보았습니다. 몸이 망가지더군요.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며 깨닫게 된 것은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근본 의미를 아는 일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사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였습니다. 돈이 인생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향락이 인생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권세가 인생을 만족시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지혜자 솔로몬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쫓고 있지요? 그것이 삶의 목적인 줄 속으면서... 그것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2000억이 넘는 인간들이 죽어라 가고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 불행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쫓았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집안의 근간이 무너지는 불행을 통해 그것들의 실상과 인간의 실상을 알게 하셨습니다.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신 은혜요, 축복의 시작인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나중에야 깨닫게 하시더군요. 그 과정은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지요.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충성을 다했던 것들은 모두 망가지고 부서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가방 하나를 들고 미국의 신학교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가방 하나를 들고 미국의 신학교로 왔습니다. 내 친구가 저를 한국에서 일부러 찾아와 "너 미쳤니?"라고 물었습니다. 다 팽개치고 사업도 팽개치고 가방 하나 들고 가족들을 두고 신학교로 온 것이 미친 것이 아니냐고 핀잔을 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저를 더욱 확신 있게 해 준 말씀이 오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진리... '아,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구나.' 그리고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하도록 주인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진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주가 그렇게 지으셨다는 진리.' 제가 그동안 혼돈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이 깨달음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죄로 길들여져 우뚝 솟아 있는 바벨탑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죽으셔야만 할 만큼 높아진 자존심, 아담의 족속으로 길들여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저에 대한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의뢰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셨습니다. 그래도 의지했던 한국의 재산을 다 걸어 가셨습니다. 영주권도 10년이 걸려 3번이나 사기를 당하게 하셔서, 의지할 가치가 없는 인간을 의지해 오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만 남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긴 과정은 저에게 **신앙의 "뱃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아내, 두 자녀들 죽어라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뱃뱃했던 인생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워크 자그마한 교실 하나를 빌려 겁도 없이 개척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인은 저와 아내 그리고 두 자녀였습니다. 임대료는 한 달에 150불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딸은 피아노를, 어린 아들은 누가 안 오나 하여 예배 중에도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밤에는 아내와 밤 청소를 시작했고, 청소가 끝나는 새벽 4시 30분이 되면 도넛 하나에 커피를 먹고 교실에 가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와 3시간을 자고, 아내는 일터로, 저는 우편함에서 뽑아낸 한인 가정의 주소를 들고 집집마다 찾아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1년을 전도했는데 딱 1명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막 미국에 이민 온 부부였지요. 나중에 안 사실은 낮에는 모두 일하러 가는데 그걸 모르고 전도를 하러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런 미련한 사역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노회에 참석하여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던지 막 안수를 받고 어떻게 목회를 할까 고민하시던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은혜는 이 시작으로 저는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를 보내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 자신을 자녀들에게 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 주시는 것이지요. 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인생이 길고 시련들이 길게 이어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축복이십니다. 깨달을 때까지 길게 설명하십니다. 내 잘못을 못 깨달으면 계속 그런 일을 발생시키십니다.

깨달을 때까지...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자식이 잘못하면 야단 안 치고 매 안 드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죽도록 때리십니다. 무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면서 몇 명의 교인이 왔습니다. 그런데 교인은 밤 청소하시는 집사님 내외분 2명하고 학생 3명이었습니다. 학생 3명은 밥 먹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세상에서 살던 때는 그런 기쁨을 느껴 본 적도 그런 기쁨을 품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한 영혼에 대한 마음 이시구나를 알았습니다. '주님도 이러시는구나.'

그렇게 세월이 흘러 몇 년 개척 교회를 하면서 이상한 현상이 저에게 보였는데, JAIL(교도소)과 청소년 감옥과 관계된 사람만 만나게 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큰 교회에서 목회자를 뽑는다고 하여 지원도 해 보았으나 그

길이 열리지를 앓더군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열린 문***을 보이셨는데 그것이 Jail이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제일부터 새벽 5시에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 방문을 시작했을 때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미국 채플린들을 만나게 되었고, 연방 채플린도 만나게 하시더군요. 그때 깨달은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저는 주님께 저 자신과 모든 삶을 드리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어 설교도 아직 제대로 못하는 저에게 많은 문들을 열어 주셨고, 저의 부족에 대해서는 아론과 훌을 붙여 주시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더군요.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하시더군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으시고 어디에나 은혜가 있게 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했을 때 문들이 열리시고 사람들을 붙이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일에 대해 제가 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미국의 신학교로 향하며 하나님을 택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고치시더군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말씀입니다.

역대하 7: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저에게 보여주신 축복은 땅을 고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 주위는 다 돈과 관계된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모두가 경쟁자였고 모두가 모사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미국으로 와서 몇 년이 지나 저를 낮추시고 빛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느 날 제 주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제 영역, 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 은혜를 말하고 축복해 주시는 관계들로 바뀌어 놓으셨습니다. 제 영역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골로새서 1: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이 세상에 있으나 통치와 영역을 은혜의 영역으로, 축복의 영역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없이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적도 없이 허망한 것들을 쫓아 살던 저와 아내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섬기는 자로 부르셔서 갇힌 형제자매들에게 30년간 주님을 알리고 보이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영혼들,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영혼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된 인생을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삶도 주님의 편지로, 주님의 향기로,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삶을 통해 증거하면서 물 댄 동산같이 살기를 기도하며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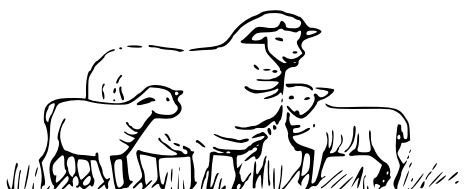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인간의 모든 불행과 저주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지으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주셔서 악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훗날 주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시는 날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김석기 목사 드림



임데릭 (임태우) 목사 자기소개 및 비전 선언문

제 이름은 **데릭 임(Derek Yim)**이고, 한국 이름은 임태우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태어났으며, 삼남매 중 막내입니다. 저희 가족은 더 나은 삶과 새로운 기회를 찾아 **1975년 4월 19일**,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제 삶은 파티와 방황으로 가득 찬 죄된 삶이었습니다. 참된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한 채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8년 5월**, **오리엔탈 선교교회(Oriental Mission Church)**에서 열린 대학생 부흥집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의 깨어진 마음을 붙드셨고, 그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삶을 이끌어 주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제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늘 상기시켜 주며,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양한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3년** 동안 청소년 사역자로 섬겼고, 이후 교회 안에서 여러 리더십 역할을 맡아오다가 **2012년 4월**, 집사로 임직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1995년** 여름, 대학 수련회에 참석하던 중 하나님께서 강한 비전을 제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약물, 폭력, 노숙, 수감 생활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을 섬기고 제자화할 수 있는 드림센터(Dream Center)**를 세우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령께서 제 마음 깊이 감동을 주셨고 그 부담은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BIOLA** 대학교에서 **MBA** 과정을 이수하면서 이 사역을 주제로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몇 년 전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LLC** 회사도 설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나처럼 도망쳤습니다. 부르심을 피하고, 두려움과 핑계로 순종을 미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끊임없이 은혜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 전심으로 나아가며,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과 회복, 치유를 전하길 원합니다. **1995년** 그 수련회 마지막 밤에 주신 비전이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오네시모(**ONESIMUS**) 사역에 참여하게 된 것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오래 전부터 계획하신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여정이며, 저는 그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고자 합니다—소외된 자들, 잃어버린 자들, 상처 받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상경 선교사 간증

내 마음을 감동시킨 선물

집에 돌아와 사랑샘에 배달된 우편물을 열었을 때, 잠시 동안 가슴을 저미는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주 정부에서 발행한 100달러짜리 수표였고, 발행인은 한 여성 교도소 수감자였습니다.

2017년에 저는 수감자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려는 목적으로 찬양팀을 만들었습니다. 수감자들과 꾸준히 시간을 보내면서, 수감자들이 시간당 최소 0.16달러에서 최대 0.75달러를 벌지만, 주 법에 따라 하루에 2달러 이상 벌 수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달러를 기부한 여성 수감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더욱 특별했던 것은 이전에 한 수감자가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편지를 보내면서, 성경과 저희 찬양팀에서 만든 달력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일입니다. 봉투 뒷면에는 빨간색으로 "Indigent(궁핍한 자)"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교도소는 가족이나 연고가 없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수감자들의 편지에 이 도장을 찍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감동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이틀 후, 저는 김석기 오네시모 선교회 목사님께 수표 사진을 보내고 메시지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목사님은 수감자 자매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 찬양팀에 빛을 비추셨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44절의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말씀을 인용하시며, 주님께서 그 수감자 자매와 우리 찬양팀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1980년 9월 어느 날,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친 후 저는 가족 중 마지막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LA까지 24개월 할부 비행기표를 끊어 LA를 거쳐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 정착했습니다. 1세대 이민자들 사이에는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느냐에 따라 직업이 결정된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치과 기공소에서 일하시던 형님이 저를 마중 나와, 도착한 다음 날 치과 기공소의 배달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45년간 치과 기공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60세가 가까워지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학력도 변변치 않았던 제가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의 중년 가장이 되고, 사회의 특정 분야에서 책임감 있는 전문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준 이 나라에 감사했습니다. 때가 되면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을 때 이웃과 나누며 사는 법을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찬양팀을 결성하여 수감자들을 위해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는 몬테레이에서 멀지 않은 솔레다드 주립 교정 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도소 담당 목사님이신 민병덕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수감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았지만 모르겠다고 답하자, 달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흔한 달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수감자들에게는 출소 날짜와 사면 날짜를 세어야 하므로 필수적인 물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공부했고 현대 사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에드워드 웨스턴 가족을 알고 있어서, 그들과 함께 고등학생들에게 사진을 가르치고 그들이 제출한 사진에 성경 구절을 넣어 달력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목사님은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며 달력을 만들어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에드워드 웨스턴의 손자인 킴 웨스턴의 집에 들러 논의하고 동의를 얻은 후, 2019년 3월부터 웨스턴 콜렉티브(Weston Collective) 시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첫 1,500부의 달력을 제작하여 캘리포니아 솔레다드(Soleda, CA)에 있는 교정 훈련 시설(Correctional Training Facility)에 기부했습니다. 이듬해에는 3,300부를,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1,000부를 제작하여 캘리포니아 전역 29개 교도소에 기부했습니다.

전상경 선교사 간증

수감자들의 감사 카드와 편지들, 그리고 출소한 수감자들이 사회에 적응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간증들은 사랑샘 찬양 선교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의 요청으로 교도소 방문 횟수가 늘어나고 달력 기부 부수가 증가하면서, 방문 요청을 하는 교도소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감자들과 교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는 사회가 영화나 뉴스 매체를 통해 모든 수감자를 악랄하고 폭력적으로 묘사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악랄하고 폭력적인 범죄자들도 있고, 그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수감자들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며, 그들 중 상당수는 고학력자이고 종교적 지식도 풍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지식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석기 목사님의 조언에 따라 오네시모 선교회를 통해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약 1년 반 동안 공부한 후, CTF의 담임 목사로 섬기시는 민병덕 목사님의 추천으로 버클리 신학대학원(Berkeley School of Theology)에서 신학을 공부하여 지난 5월에 졸업했습니다.

버클리 졸업식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너무나 감격하여 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모를 쓰고 졸업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기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심지어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도, 그분의 사랑은 항상 저와 함께하셨고, 어린 시절 길을 잃고 거의 악의 손아귀에 넘어갈 뻔했을 때도, 저를 여러 번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하여 오늘날의 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9월에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삶으로 녹아들지 않는 종교적 지식은 교만이라고 가르치셨고(야고보서 4:13-17),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마음까지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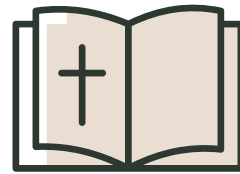
저희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표조차 살 돈이 없어 주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한 수감자가 사랑샘 선교회에서 보낸 달력을 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과 다름없는 100달러를 보낸 것은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예수님께 드린 과부와 같습니다. 김석기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 극도로 가난한 수감자에게서 100달러의 작지만 엄청난 가치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적 조언

시련을 겪는 이들을 위한 격려

-Pastor Derek Yim



인생은 수많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이 고난은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삶의 여정이 평탄하거나 쉬운 길이 아니라, 오히려 시련과 고난이 함께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 땅에 왔지만, 현실은 매일같이 도전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단 한 순간의 실수가 너무나 큰 대가로 이어질 수 있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깊은 상처와 비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고난을 겪는가보다,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응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는 종종 문제나 고난이 생기면 하나님 뜻을 거스른 결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를 빚고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거나 직접 이끄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관점에 의존하기보다는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한 더 크신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문제를 피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1.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십니다. 잠언 20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와 상처는 악을 없이하나니, 채찍질은 사람 속에 있는 깊은 것을 없이하느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종종 사용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매우 완고해서, 진정한 변화는 시련 없이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음식과 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곧 시냇물이 마르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새로운 사명지로 인도하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니느웨가 아닌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고, 하나님은 폭풍과 큰 물고기를 보내어 그를 다시 이끄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요나는 결국 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문제에 직면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시는가? 어디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저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분께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더 크신 목적을 이루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시련을 겪는 이들을 위한 격려

2.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면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되돌아보도록 초대받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은 사실 2주면 충분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교만을 꺾고, 믿음을 시험하며, 그들이 정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

다. 하나님은 그들을 일곱 번 시험하셨고, 그들은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로 이끄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듬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3.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세우십니다

인생은 마치 학교와 같고, 그 교과서는 바로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종종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 더 깊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비록 이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라고 지혜를 얻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렬시키십니다. 문제만 바라보며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길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파산은 돈의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감옥에 있는 아들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수감되었을 때, 아내는 그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사랑과 헌신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문제는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주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피하거나 고난에서도 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정직하게 마주하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우리를 바른 길로 세우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4.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사실은 숨겨진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 수감자들이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없었다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아니면 마약 중독자가 되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비극처럼 보였던 상황이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몇 해 전, 한 교회 성도님이 부도덕한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거절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는 목사님과 상담했고, 목사님은 믿음을 지키며 단호히 거절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그는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그러나 단 2주 후, 그 회사의 대표와 몇몇 직원들이 불법 행위로 인해 기소되고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 그 성도님을 더 큰 화에서 보호하신 것이었습니다.

시련을 겪는 이들을 위한 격려

우리의 모든 시련과 실패는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조차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허락되었음을 믿어야 하며, 그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이 문제가 왔는가?”가 아니라,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입니다—믿음으로, 용기로,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 디모데전서 4장 4절



5.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 분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을 쉽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과 형상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삶의 기복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그것들은 축복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정련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십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성장과 변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든, 다음 네 가지 진리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 그분의 눈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3. 하나님은 그 문제를 변화시키고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4.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 우리를 그분의 뜻 안으로 더 깊이 이끌어 가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의 시련조차도,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Letter from Pastor Manuel

6/8/25

To: Onesimus Prison Ministry

From: Manuel Antere Xolo

Testimony Letter

First of all I thank you to God to give me the opportunity to work in this Ministry. through Pastor Kim, my testimony is very very ~~long~~ long history I am original from Veracruz Mexico. at the age of 17 Year I emigrate to USA. ~~to~~ San Fernando Valley near to Los Angeles, after 3 year staying there I got involved into the gang. step by step I began used drugs and many others bad things, I did it, so I spent more than 10 years in prison for a different cases, but one day when I was in Cuno state prison, I assisted in the service church. a few weeks later I receive Jesus Christ as my Savior there after time I finish serving my time in prison ~~then~~ then I get Release, in 1999, I try to do my life in the right way but I get arrested agai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 don't want me to be in the USA. any more because of my bad record. So they took me to M.D.C Los Angeles building a few weeks later they took me to federal Court, and the Judge saw my record they try to sentence me 20 years, I realize there is no way to go, I call God to help me and please give me one opportunity, I really believed God listen to my prayer, in 2002, I got sentence 57 months almost 4 years so at the same year the B.O.P transport me to San Pedro terminal Island federal prison. in terminal Island I attend the worship service me and Pastor Kim we meet each other and a few brothers from Onesimus Ministry so we begin having a good ~~re~~ relation as a brother in Christ. My life was change it as a New Creation. 2 Cor 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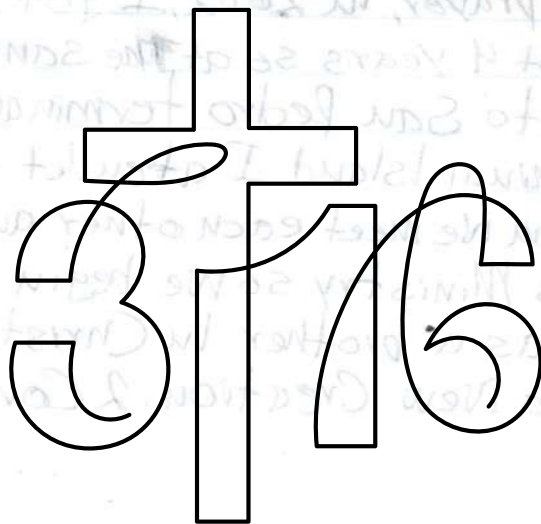
The time in Prison has passed very fast in October 2004
I get release from Terminal Island. after that they
Took me to Santa Anna Immigration detention Center

I remember pastor Kim visit me in Santa Anna. He told
me to get prepare for ministry. I never forget He read
The Bible in Joshua 1:2, Get ready to Cross the Jordan
river. I know God use Pastor Kim ~~to~~^{he} put it in my way
After deportation pastor found a Seminary in Tijuana
Mexico. I finish Seminary study, ~~and~~ Since that time
I being serving to God. In 2009 I get marry with my
Wife Sosana. We both serving to God in Onesimos
Ministry. We open a Church Mission in Terrazas del Valle
Tijuana, and one more in Veracruz. Me and my wife
Sosana we having passed through to many things
but God ~~is~~ always been beside us. God is good
I am sorry for my poor English I hope my testimony
Can Motivate Who ever Read it.

Thank you God

Thank you Pastor Kim

Thank you to all the brothers from onesimos Ministry
from: Manuel Ante Xolo





오네시모 신학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도록 힘쓰라."
- 디모데후서 2장 15절

> 사명

오네시모 신학 학교의 사명은 신자들이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필수적인 교회 교리를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 목적

오네시모 신학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을 중심으로 세워진 신학 교육 기관입니다. 우리 학교의 목적은 지상명령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무오하고 오류 없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 힘쓰는 남녀 신학생들을 찾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 오네시모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의 빌레몬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치고 도망친 종이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였고 오네시모는 그 복음을 통해 삶이 급격히 변화되었습니다(빌레몬서 10절). 회심한 후, 바울은 빌레몬에게 강력한 화해의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종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16절). 바울은 한때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자신과 하나님의 집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확신하며 말합니다.

> 역사

오네시모 선교회는 1994년부터 교도소와 구치소 사역을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 사역으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제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여

****오네시모 통신신학교(Onesimus Correspondence College)****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00년부터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수백 명의 수강생들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오네시모 신학교(Onesimus School of Theology)****를 정식으로 설립하였고, 현재는 총 120학점으로 구성된 성경학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교육 목표

1. 학생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적, 도덕적, 지적, 경건의 성장을 이루도록 양육합니다.
2. 참된 예배는 단지 형식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믿음과 실천—을 포함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도록 가르칩니다. 이는 개인의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겸손과 희생적 사랑의 삶을 실천하도록 격려하며, 이러한 삶이 교회와 세상 앞에서 강력한 증거가 됨을 인식하게 합니다.
4.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에 대한 책임감과 적극적인 참여 의식을 기르도록 합니다.
5. 학생들이 기독교 신앙을 운용하게 변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지식과 은혜로 무장시킵니다.

> Certificate and Degrees

CBM: 성경선교학 수료증 (30학점)
ABS: 성경학 준학사 (60학점)
BBS: 성경학 학사 (120학점)

Contact Us:



714-739-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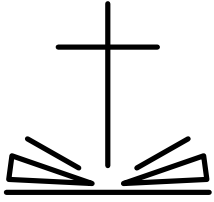
P.O. Box 247
Buena Park, CA 90620



Onesimusministry94@gmail.com



Onesimusministry.org



하나님말씀 암기코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6-7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10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28-30

“그가 너를 그의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이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시편 91:4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3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54:10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14

